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현황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Sexuality Education 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임 여 주 (Yeoju Lim)**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정하여 도서가 포함하는 주제와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의 특성, 저자의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성교육 도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주제 중 분석 대상 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몸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지식, 난자와 정자, 월경 주기, 호르몬의 역할 등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가장 언급되지 않은 주제는 HIV와 AIDS,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체 도서의 63.5%가 줄글책이었으며, 그림책과 만화책, 사진 삽화 그림책 등의 형식도 있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의 출판이 활발해졌으며,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저자의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을 충분히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성교육 도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77 most popular sexuality education book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published in Korea, based on various criteria, including subject matters, format, implied readers, and author's occupational background. Among the key topics of the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developed by UNESCO, the most mentioned was that it is natural to have curiosity on one's own feelings and body and that sex education books can help them learn about them. Respect on one's own body, knowledge of sexual and reproductive organs, eggs and sperms, menstrual cycle, effect of hormones were also easily found topics from the books. The least mentioned topics were HIV/AIDS and Gender-based violence. 63.5% of the analyzed books were books with/without illustrations. Other formats include picture books, comic books, and photo-illustrated books. Publication of books aimed for particular gender started to increase from 2019. Diversity of authors' occupation were also shown starting 2019. Further research on the role of sex education books is crucial to help all children and young adults develop their own sexuality and understand that of other people, and ultimately to live in a harmonious society.

키워드: 성교육, 성교육 도서, 성교육 책, 어린이책, 청소년책

Sex Education, Sexuality Education, Sexuality Education Book, Children's Book, Young Adult Book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yeojoollim@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25-454,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25>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2018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책을 통한 학교 안팎 성평등 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문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1) 성평등을 주제로 삼거나 성평등한 시각이 잘 담긴 도서를 선정하고 성평등 도서의 창작·개발·제작을 지원하며, (2) 모든 어린이가 성평등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3) 일선 학교에 성평등 교육을 확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8). 이 중 ‘성평등을 주제로 삼거나 성평등한 시각이 잘 담긴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은 <나다움어린이책 도서선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에 134권, 2020년에 65권이 선정되었다. 도서 선정 과정에는 교사, 아동·청소년문학가, 평론가, 그림책 작가 등이 참여하였다. 선정된 도서는 ‘나다움 책장’ 지원 신청에 참여한 초등학교에 보급되었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만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이 사업은, 그러나, 2020년 8월 27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2020년 12월 31일, 약 2년 만에 중단되었다. 2020년 8월 20일 일부 학부모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나다움어린이책’ 중 “포르노 같은 동화책”이 있다고 주장하고, 같은 달 25일(당시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선정 도서에 “조기 성애화 우려까지 있는 노골적 표현이 있다”,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주장한 후의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김 의원의 발

언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일부 초등학교에 보급된 선정 도서 중 김 의원이 지적한 7종을 회수 결정했다(이상원, 2020).

해당 도서에 대한 비난은 그 책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도 옮겨갔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재빨리 해당 도서의 대출 및 검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어떤 도서관 관계자는 “책 내용이 동성애 편향적이고 그림이 노골적이라 따로 분류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도서관 관계자는 “‘선정적인 책이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려 검색을 막았다”고 말했다(전광준, 2020). 도서관의 장서를 검열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있을 때 도서관에서 이처럼 대출 및 검색을 금지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외 도서관계의 윤리강령 및 윤리선언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는 검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다. 한국도서관협회(2019)가 발표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는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 IFLA(2012) <사서와 정보 종사자들을 위한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정보 접근(Access to information)’이다. “사서와 그 외 정보 종사자는 정보와 견해(idea)에 대한 접근을 부정(denial)하고 제한하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국가, 정부, 혹은 종교 단체나 시민 단체의 검열을 거부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나다움 어린이책’ 회수 결정으로부터 약 1주일 후 도서관, 출판, 교육계의 21개 단체가 소속된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성명서에는 “여성가족

부는 특정 도서 회수 결정을 철회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이 민간의 도서 선정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가기관이 특정한 책에 대해 이러저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며, 이러한 검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은 제6회 금서읽기주간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회수 조치한 7권의 책을 함께 읽는 운동을 펼쳤다. 이를 ‘나다움 어린이책’ 검열에 대한 도서관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정보 검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이 안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심효정(2003, 27)은 “도서관이 자신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를 위해서도 정보검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덕현(2011)은 지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도서관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검열과 독서권,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 외부에서 가해지는 검열 압박에 대처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이메일, 게시판 글을 사서 한 명, 도서관 한 곳이 대응하기란 무척 버거운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돕기 위해 미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자료 〈도서관 장서에 대한 검열과 우려에 대응하는 방법(How to Respond to Challenges and Concerns about Library Resources)〉에는 외부 검열에 대처하는 9단계 절차가 제시된다. 그 첫 단계는 도서관 장서에 관해 질문할 권리가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이 걱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검열하려는 그 책 전체를 다 읽었는지 혹은 일부만 읽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Martin & Magi, 2021). 즉, 검열을 시도하는 사람과 사서가 책의 내용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사서가 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김 의원이 문제 삼은 7권은 모두 성교육에 관련된 도서였다. 7권 중 3권은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성교육’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책이고, 1권은 출판사 책 소개에 성교육에 관한 책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3권은 성역할과 인권, 차별과 차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들이 최근 성교육 도서 출판 트렌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임을 고려하면 검열이 시도된 7권 모두 넓은 의미에서 성교육 도서라 할 수 있다. 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청소년책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책보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알아도 되는 혹은 알고 있는 성 지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개개인의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 또한 검열의 주된 이유이다. 미국도서관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검열이 시도된 도서는 대부분 어린이·청소년 책이었으며,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항의가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책에 ‘성적으로 노골적인(sexually explicit)’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¹⁾(American Library

1) 2017년 이후부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검열 시도의 이유는 성소수자(LGBTQIA+)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은 두 번째로 자주 제기되는 주제이다.

Association, 2020b). 한국의 경우 '나다움어린이책'에 대한 검열 이후 이와 유사한 검열 시도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와 같은 검열 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를 사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정하여 도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의 연령대, 저자의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성교육 도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 성교육 도서에 대한 사서들의 이해를 돕고 성교육 도서를 판단하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출판 시장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도서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Venzo, 2021, 30). 현재까지 진행된 많지 않은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내용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남기원, 이수연, 공예린(2016)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출판된 성교육 관련 그림책 168권을 선정하고 2015 유치원 성교육표준안을 기준으로 이를 분석하였다. 2015 유치원 성교육표준안에서 제시한 4개의 영역 중 '인간 관계(소중한 가족,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결혼의 의미와

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132권, '인간 발달(나의 몸과 마음, 남녀의 성과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113권이었으며, '사회와 문화(성폭력의 예방, 성역할, 인터넷 등 미디어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41권, '성 건강(내 몸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은 총 13권이였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도서에서 인간 관계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관한 정보는 많이 언급되는 반면, 성폭력과 성역할, 유아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수연, 김수향(2016)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그림책 중 성교육 그림책을 선별하여 책에 나타난 생활 주제, 장르, 내용을 분석하였다. 3-5세 누리과정에 제시된 그림책 중 성교육 그림책은 약 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5세 누리과정에 있는 성교육 그림책의 경우 생활 주제와 장르, 내용 면에서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유아의 발달 과정상 3, 4세가 유아 성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세와 4세 누리과정에 있는 성교육 그림책에는 다양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Liang, O'Halloran, Tan(2016)과 Liang, Tan, O'Halloran(2017)은 중국에서 출판된 유아 대상 성교육 그림책을 각각 7권, 6권 선정해 비평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책 속 등장인물과 의인화된 비인간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 캐릭터에 부여되는 역할과 사용하는 언어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현재 중국에서 유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적 가치와 도덕 관념이 그림책

에서 은유적으로 그러나 명확히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교육 중에서도 특히 아동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다룬 그림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 박현경, 봉진영(2013)은 국내에 출판된 아동 성폭력을 주제로 한 그림책 16권을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그림책에 표현된 성폭력 상황이 현실의 성폭력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방법이나 타인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문선(2010)은 독일에서 출판된 성교육 그림책 중 아기의 탄생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그중에서도 비판과 사랑을 한꺼번에 받는 작품 〈엄마 말해 주세요, 누가 아이를 만드나요? (Mutter sag, wer macht die Kinder?)〉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최문선(2010)에 의하면 이 작품은 사람이 아니라 쥐를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성에 관해 더욱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성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인간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만을 단순하게 보여준 기존의 성교육 도서와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김현실, 서현아(2010)는 유아 대상 성교육 도구로서의 그림책 활용에 집중했다. 이들은 그림책이 효과적인 유아 성교육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그림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사 대부분이 그림책을 통한 유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유아 대상 성교육 그림책은 유아가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유아가 집중할 수 있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가자 중 76.2%의 교사가 실제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 의지는 있으나 교육 기관 내에 적절한 유아 성교육 그림책이 없어 그림책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운영자가 양질의 성교육 도서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최근에는 ‘나다움어린이책’에 선정된 도서에서 성교육 개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분석한 연구가 등장했다. 김방환, 윤신원(2020)은 성교육의 여러 영역 중 성역할 고정관념에 집중하였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양성평등 의식의 하위 영역인 자기 존중, 가정 내 역할, 직업·사회 활동, 성별 차이 이해를 기준으로 nadaum 어린이책 목록에 오른 그림책 86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번역 그림책에서는 양성평등 의식의 하위 영역이 고루 나타났으나, 국내 창작 그림책에서는 가정 내 역할과 성별 차이 이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분석대상인 86권의 그림책 중 국내 창작 그림책이 26.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고려했을 때, 아직 양성평등 의식을 충분히 담아낸 국내 창작 그림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지은, 양성은(2021)이 집중한 것은 젠더 감수성이다. 이들은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성과 생식 건강, 섹슈얼리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적합성, 내용의 포괄성과 국제적 공인 기준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 어

린이책에 나타나는 젠더 감수성의 분석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 중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 101권에 나타난 젠더 감수성을 분석한 결과,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도서는 대체로 어린이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돕는 콘텐츠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김대유(2021)는 나다움어린이책 선정 사업에 관련한 논란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선정성 시비가 일었던 나다움어린이책 7종을 국내 보건 교과서에 포함된 성교육 내용 및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극우단체들이 외설적이라고 지적한 용어들이 이미 모두 2015 교육 과정에 따른 보건교과서에 들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나다움어린이책이 선정적인 책일 수 없으며, 오히려 우수한 아동 성교육 자료라고 주장했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인터넷 서점의 판매 순위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인터넷서점의 판매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제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도서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도서를 입수하는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직접 구입해서 본다'(31.2%)였다. 이는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14.2%),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본다'(15.7%), '학교 밖 도서관에서 빌려 본다'(11.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직접 구입하거나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 책을 보는 경우가 45.4%, 학교 혹은 학교 밖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경우가 27%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서점 판매율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이 종이책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인터넷서점/인터넷쇼핑몰(32.7%)과 시내 대형서점(25.5%), 성인이 종이책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시내 대형서점(34.7%)과 인터넷서점/인터넷쇼핑몰(32.9%)이었다(2021, 135). 학생의 경우 인터넷서점을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는 비율이 다른 판매처에 비해 가장 높았고, 성인의 경우 대형서점을 통한 구입 비율 못지않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서점의 판매율이 곧 실제 독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²⁾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터넷서점인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에서 2021년 2월 13일 기준 가장 많이 판매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의 목록을 파악하였다(교보문고 인터넷서점은 지난 1주일간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의 순위라는 설

2) 국내 최대 규모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에 2020년 가장 많이 판매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의 목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당사 규정상 판매량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 순위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합(영업점+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은 '어린이'와 '청소년' 카테고리 내에서의 순위만 제공되고 더 세부적인 분류로는 제공되지 않아 본 연구에 참고할 수 없었다.

명이 있었으며, 알라딘과 예스24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각 서점에서 성교육 도서가 분류된 위치는 <표 1>과 같다.

교보문고에서는 어린이 도서의 경우 1-23위, 청소년 도서의 경우 1-9위까지의 목록만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각각 23권, 9권을, 알라딘과 예스24의 경우 전체 목록을 판매량 순으로 정렬하여 분류별 상위 25권의 도서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개 이상의 목록에 오른 도서가 상당수 있어 중복된 것을 제하니, 총 77권의 성교육 도서 목록이 완성되었다([부록 1] 참고).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분석 기준을 적용하였다.

3.2.1 내용 분석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의 핵심 개념과 주제를 기준으로 도서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은 2009년에 나온 초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핵심 주제들을 유지하면서, 10년간 급격히 변화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이다. 집필팀은 개정된 지침서가 현재 어린이·청소년의 성 지식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돕는 현장의 전문가와 교육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별 포커스 그룹 토론과 국제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했다(UNESCO, 2018, 12-14). 이 가이드의 부제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접근(An evidence-informed approach)”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SR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섹슈얼리티³⁾ 행동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UNESCO, 2018, 16).

<표 1> 인터넷서점별 성교육 도서의 분류 위치와 분석대상 도서의 수

인터넷서점	연령구분	분류된 위치	분석대상 도서의 수
교보문고	어린이	어린이(초등) > 어린이교양 > 성교육 > 베스트셀러	23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 건강/성교육 > 베스트셀러	9
알라딘	어린이	어린이 > 초등 전학년 > 성(性) 이야기	25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과 성(性)	25
예스24	어린이	어린이 > 어린이 교양 > 자기계발/생활 > 성교육	25
	청소년	청소년 > 청소년 생활/자기관리 ⁴⁾	25

3) 섹슈얼리티는 “생물학적 성별과 함께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성욕, 성애의 대상, 성적인 매력, 성교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성”을 의미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4) 별도의 성교육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음. ‘청소년 생활/자기관리’ 안에 성교육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그중에 성교육 도서만 추려냄.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77권의 도서가 <표 2>에 제시된 핵심 개념과 주제를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별히 많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

은 각 주제에 따른 연령대별 학습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핵심 개념 1: 관계'의 첫 번째 주제인 '1.1 가족' 아래에는 5-8세, 9-12세, 12-15세, 15-18세 이상의 연령대별 학습목표가 각각 2-4개씩 제시된다(<표 3> 참고).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인 77권의 도서를 분석할 때, 주제에 속한 학습목표 중 하나 이상이 도서에 제

<표 2>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⁵⁾

핵심 개념	주제
1. 관계	1.1 가족
	1.2 친구, 사랑, 연인관계
	1.3 관용, 포용, 존중
	1.4 결혼과 육아
2. 가치, 권리, 문화, 섹슈얼리티	2.1 가치와 섹슈얼리티
	2.2 인권과 섹슈얼리티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3. 젠더 이해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3.2 성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3.3 젠더 기반 폭력
4. 폭력과 안전	4.1 폭력
	4.2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4.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5.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술	5.1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5.2 의사결정
	5.3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5.4 미디어 정보해독력과 섹슈얼리티
	5.5 도움과 지원 찾기
6. 인간의 신체와 발달	6.1 성, 생식기, 생리
	6.2 임신
	6.3 사춘기
	6.4 신체 이미지
7.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	7.1 성(Sex), 섹슈얼리티(Sexuality), 생애주기별 성 생활
	7.2 성적 행동 및 반응
8. 성 및 재생산 건강	8.1 임신, 임신예방
	8.2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8.3 HIV를 포함한 성매개감염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5) <표 2>와 <표 3>에 기재된 문구와 문장은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UNESCO 본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에 나온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3〉 ‘핵심 개념 1: 관계 - 1.1 가족’의 연령대별 학습목표

핵심개념	주제	학습목표	
1. 관계	1.1 가족	5-8세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족 구성원들 각각 다른 요구와 역할이 있다.
			젠더 불평등은 종종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나타난다.
			가족 구성원은 아이들에게 가치를 교육하는 데 중요하다.
		9-12세	부모/보호자,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아동의 가치 형성을 도우며, 그들의 의사결정을 인도하고 지원한다.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다.
			건강과 질병은 가족의 구조, 역량, 책임의 측면에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12-15세	부모/보호자와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의 갈등과 오해는 흔하며 보통 해결 가능하다.
			건강한 가족의 기능과 관계를 위해서는 사랑, 협력, 성 평등, 상호 돌봄,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성적이 관계와 건강 문제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이 성적 관계나 건강 문제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돕는 지원 시스템이 있다.
		15-18세 이상	성적이 관계와 건강 문제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이 성적 관계나 건강 문제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돕는 지원 시스템이 있다.
			성적이 관계와 건강 문제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과 가족 구성원이 성적 관계나 건강 문제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돕는 지원 시스템이 있다.

시되어 있으면 그 도서가 해당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표 3〉을 예로 들면,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는 내용이 A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 각각 다른 요구와 역할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A를 ‘핵심 개념 1: 관계 - 1.1 가족’ 주제를 포함한 도서로 간주하였다. 학습목표의 연령 구분은 제안일 뿐 지역과 집단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므로(UNESCO, 2018, 35) 도서의 대상 연령과의 일치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3.2.2 형식 및 서술 기법

Paul(2005, 222)은 어린이책의 본질적인 의

미를 규정하는 두 개의 요소가 가르침(instruct)과 즐거움(delight)이라고 했다. 이는 픽션과 논픽션⁶⁾ 모두에 적용되는데, 유일한 예외가 성교육 도서이다. Paul에 의하면 성교육 도서에는 오직 가르침만 존재하며, 더 객관적이고 더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할수록 더 좋은 성교육 도서로 인식된다고 했다. 그러나 Venzo(2021, 40)는 정보를 전달하는 책 역시 독자에게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Freedman(1992, 3)의 주장을 인용하며, 서술 기법(narrative strategies)에 따라 성교육 도서 역시 어린이 독자에게 충분히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어린이 지식정보책의 트렌드는 사실과 허구, 묘사

6) ‘픽션’과 ‘논픽션’은 도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용어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출판된 어린이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 전달 목적의 어린이책에는 등장인물, 플롯 등 작가가 지어낸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픽션은 지어낸 이야기, 논픽션은 사실 정보’라는 이분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분류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Mallett(2004, 622)의 정의에 따라 “지식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책을 지식정보책(informational book)이라 보고, 도서의 분류에 이 용어를 사용한다(인용한 연구에서 ‘논픽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와 서술을 적절히 혼합하여 독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Pappas, 2006, 240-243).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도서 77권이 (1)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설명' 방식과 (2) 등장인물, 플롯(plot) 등의 허구적(fictional) 요소가 포함된 '이야기' 방식, (3) 그 둘의 혼합 방식, (4) 그 외의 방식 중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그림과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의 유무, 시각적 자료의 분량 등을 기준으로 도서의 형식도 살펴보았다.

3.2.3 대상 독자와 저자

각 도서별 대상 독자의 연령대와 성별, 저자의 국적과 성별, 직업과 경력 등을 파악하여 이것이 도서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서의 출판 연도와 위에 언급한 요소들 간의 상관성 등도 분석하였다.

4. 분석 결과

4.1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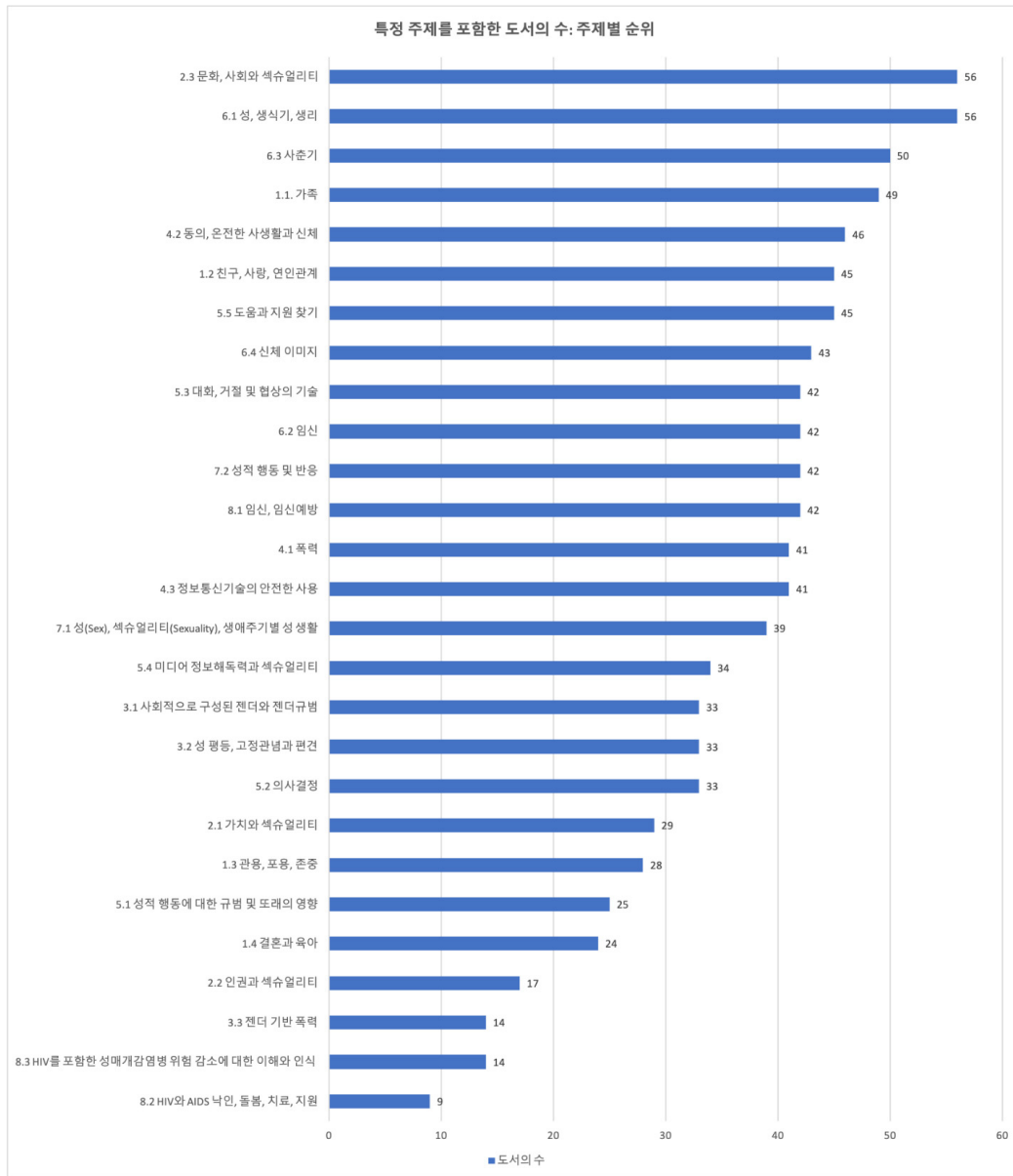
4.1.1 도서가 포함하고 있는 주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27개의 주제 중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77권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그리고 '6.1 성, 생식기, 생리'였다. 두 주제는 각각 56권(73%)의 도서에서 언급되었다.

'2.3 문화, 사회와 섹슈얼리티' 주제 아래에서 가장 많은 책에 언급된 학습목표는 '2.3.1 자신의 감정과 몸에 대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이다. 54권(70%)의 도서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궁금해하고 섹슈얼리티를 탐험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는 머리말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괜찮은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요,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저마다의 궁금증이 있답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12-13) 라고 말한다. <성교육 상식 사전> 역시 머리말을 통해 "몸은 내가 살아가는 토대예요. '자기 자신'이지요. 누구나 몸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이성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지요." (2015, 3) 라고 말한다. 많은 어린이·청소년 독자에게 성교육 도서는 과학책이나 역사책보다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이다. 성교육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양육자와 교사가 여전히 많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이·청소년 자신도 성에 관해 호기심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성세대가 알게 모르게 전수한 선입견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상당수의 성교육 도서가 책의 도입부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몸을 궁금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통해 독자를 안심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나갈 수 있게 한다.

'6.1 성, 생식기, 생리' 주제에서 다루는 학습



〈그림 1〉 특정 주제를 포함한 도서의 수

목표는 자신의 신체 이름과 기능 알기, 몸에 대한 호기심(특히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월경 주기, 난자와 정자, 호르몬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이

다. 이는 오랫동안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교육 도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 온 주제로, 지금도 그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 ‘생리’에

집중한 도서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77권의 도서 중 10%인 7권이 생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다. 7권 중 5권은 제목에 '생리' 혹은 '초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7권의 도서 중 5권이 2019년 이후 출판된 책으로, 이즈음부터 여성 청소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는 다양한 생리용품의 사용법과 장단점,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생리 관련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처법 등 현실적인 매뉴얼뿐 아니라 월경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찰, 월경과 관련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에까지 생각의 영역을 확장한다. 〈빨강은 아름다워〉의 표지는 월경혈을 연상시키는 새빨간 색으로 채워져 있다.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빨강(=월경)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독자가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다.

가장 언급되지 않은 주제는 '8.2 HIV와 AIDS 낙인, 돌봄, 치료, 지원', '8.3 HIV를 포함한 성매매감염병 위험 감소에 대한 이해와 인식', '3.3 젠더 기반 폭력'이다. 18% 이내의 책에서만 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에 신고된 HIV/AIDS 감염인은 1,222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에이즈 유병률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 이기는 하나 신규 신고자의 수는 매해 꾸준히 늘고 있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개발로 인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 감염질환이며,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질병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질병관리본부, 2020), 사회에는 여전히 이 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연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교육 도서 중 일부에서만 HIV/AID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성교육 도서에서조차 어린이·청소년이 이 질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젠더 기반 폭력 역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성교육 도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주제였다. '3.3 젠더 기반 폭력'의 학습목표 중 하나인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해로우며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도서는 11권이었다. 이를 포함해 총 14권의 도서가 젠더 기반 폭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젠더 기반 폭력(GBV: Gender-based Viol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젠더 기반 폭력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도서는 드물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정의와 명명(命名)임을 고려하면, 성교육 도서를 통한 젠더 기반 폭력 문제의 접근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도서 중 과반수의 책에서 언급한 주제는 사춘기와 이후 몸과 마음의 변화에 관한 내용(6.3 사춘기, 6.4 신체 이미지, 6.2 임신),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1.1 가족, 1.2 친구, 사랑, 연인관계), 폭력과 안전에 관한 내용(4.2 동의, 온전한 사생활과 신체, 5.5 도움과 지원 찾기, 5.3 대화, 거절 및 협상의 기술, 4.1 폭력, 4.3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 섹슈얼리티와 성적 행동에 관한 내용(7.2 성적 행동 및 반응, 7.1 성, 섹슈얼리티, 생애주기별 성 생활, 8.1 임신예방)이었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5.4 미디어 정보해독

력과 섹슈얼리티), 젠더규범(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성 평등(3.2 성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미(5.2 의사결정), 성에 관련한 신념과 태도(2.1 가치와 섹슈얼리티, 5.1 성적 행동에 대한 규범 및 또래의 영향), 다양성 존중(4.3 관용, 포용, 존중), 결혼과 육아(1.4 결혼과 육아), 인권(2.2 인권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내용은 반수 이하의 책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및 대처와 예방에 관한 이야기가 사회적 맥락에서 성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4.1.2 도서가 전하는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27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77권의 도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제의 포함 여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어떤 문장에서는 유네스코 가이드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가, 또 다른 문장에서 그에 반하는 말을 하는 도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 '3.2 성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에 관련한 내용에서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성교육하는 아빠의 뽀빠야, 사춘기〉에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에 의해 구분 지은 고정 관념일 뿐이에요.”(2020, 56)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주제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규범’의 학습목표인 “자신과 타인의 젠더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와 결을 같이 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남자아이는 아슬아슬한 놀이를 즐기는 반면 여자아이는 이런 놀이를 위험하게 여겨 꺼리지요.”라는 문장이 등장하며 젠더 편견을 드러낸다. 문장 아래 삽화에는 “야호, 신난다!”, “여자들은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서 놀아.”라고 외치는 파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들과 “어휴, 재들은 왜 저렇게 유치하게 놀까?”, “남자애들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라고 말하는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들이 등장한다.

〈성교육 상식사전〉에는 성소수자를 향한 편견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경직된 시각을 없애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문제로 생각하는 게 중요”(2015, 90)하다는 단락이 나온다. 그러나 바로 다음 단락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 정체성 장애’⁷⁾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니?〉에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 페이지에 걸쳐 전개된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사랑이 이성애에 대한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애꿎은 무성애자⁸⁾에 대한 편견

7) 과거 이 용어를 진단명으로 사용했던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지정 성별과 젠더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인정하며, 2013년부터 이 용어의 사용을 중지하고 대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8)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성적 활동에 관심이 매우 낮거나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지만 끌림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무관심하다거나 성적 불감증을 의미하진 않는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섹슈얼리티 중 하나다.”(동성애자인권연대 외, 2014, 30)

을 불러온다 -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편한 것은 아마도 어느 쪽에도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무성애가 아닐까?”(2015, 131).

글과 이미지가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성에 이준마의 응답하라 아우성>에서 성 지식 전문가로 등장하는 요정 핑크는 생리통과 생리불순 예방, 자궁 건강을 위해 여성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다고 우는 주인공 아람이에게 핑크는 “짧은 치마를 꼭 입고 싶을 때는 모직 속바지를 입거나, 앉을 때 담요를 덮어 주면 도움어” 된다고 말한다(2015, 56). 그러나, 핑크에게 이 정보를 전달받은 후에도 아람이의 복장은 바뀌지 않는다. 모직 속바지를 입거나 담요를 덮는 장면도 나오지 않는다. 아람이가 처음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한 42쪽부터 책의 마지막 장인 173쪽까지 아람이는 내내 분홍색 미니스커트 차림이다. 심지어 요정 핑크 본인도 연

보라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으며, 아람이의 친구로 등장하는 다른 여자아이들도 모두 짧은 치마 차림이다.

4.2 형식 및 서술 기법

77권의 도서 중 49권(63.5%)이 줄글책이었다. 그중 34권(전체의 44%)은 삽화의 비중이 작은 지식정보책, 13권(전체의 17%)은 삽화의 비중이 큰 지식정보책,⁹⁾ 2권(전체의 2.5%)은 소설이었다. 그림책은 16권(21%), 만화책은 9권(12%), 사진 삽화 그림책(photo-illustrated picturebook¹⁰⁾)은 2권(2.5%), 스티커북이 1권(1%)이었다.

삽화의 비중이 작은 지식정보책에서는 인체의 구조나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생명에 관련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때 주로 삽화가 등장했다. 피임 도구 사용법이나 생리용품 사용법을 설명할 때 삽화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

〈표 4〉 도서의 형식에 따른 분류

형식	도서의 수	비중	세부 분류
줄글책 ¹¹⁾	49권	63.5%	삽화의 비중이 작은 지식정보책 34권(44%) 삽화의 비중이 큰 지식정보책 13권(17%) 소설 2권(2.5%)
그림책	16권	21%	
만화책	9권	12%	
사진 삽화 그림책	2권	2.5%	
스티커북	1권	1%	
총계	77권	100%	

9) 글과 삽화의 비중이 1:1 이상인 경우 삽화의 비중이 큰 도서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가르쳐 주세요! - 성이 궁금한 사춘기 아이들이 던진 진짜 질문 99개>의 경우 글만으로 채워진 페이지와 삽화만으로 채워진 페이지가 꾸준히 번갈아 나오므로 삽화의 비중이 큰 도서로 분류했다.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에는 삽화가 조금 포함되기는 하지만 글만으로 채워진 페이지가 더 많아 삽화의 비중이 작은 도서로 분류했다.

10) Jane Wattenberg(2018, 302)는 어린이책의 삽화로 그림이 아니라 사진(photography)을 사용한 그림책을 사진 삽화 그림책(photo-illustrated picturebook)이라 지칭했다. 본 연구는 Wattenberg의 정의를 따랐다.



〈그림 2〉 (좌)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2018, 40); (우) 〈나의 첫 생리〉 (2020, 10)

다. 삽화의 비중이 큰 지식정보책에서는 책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내용이 삽화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사춘기 처방전〉에서는 사춘기 소녀들에게 운동이 중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여성 청소년이 수영하는 모습, 자전거 타는 모습, 하이킹하는 모습이 모두 삽화로 그려졌다.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에서는 친구와의 우정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소년 둘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소파에 드러누워 과자를 먹는 모습이 삽화 혹은 사진으로 들어갔다.

사진 삽화 그림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와 〈나의 첫 생리〉이다. 두 책에서는 각각 사춘기 청소년들과 저자가 사진의 모델로 등장한다. 이들은 사춘

기 몸과 마음의 변화, 그에 대처하는 자세 등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낸다. 〈그림 2〉 왼쪽에 있는 사진은 어린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며 겪는 사춘기 스트레스에 관한 글과 함께 제시된다. 오른쪽 사진은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 그에 따른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다. 두 사진 모두 지금 사춘기를 겪어내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생생히 반영한다. Freedman(1992, 13)은 효과적인 논픽션(지식정보책)의 필수 요소로 생동감을 강조했다. 논픽션이 제공하는 정보의 세계에 독자가 기꺼이 들어가 그 안에서 함께하고 싶을 만큼 주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교육 정보를 다루는 논픽션에서는 생생하고 사실적인 시각 자료를 포함

11) 그림책과 비교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 텍스트(줄글)가 중심이 되는 책을 말한다.

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사진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시각 자료로 인한 검열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함인데, 그로 인해 독자는 늘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갖고 성교육 도서를 읽게 된다 (Venzo, 2021, 36).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중에도 신체 기관이나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은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권의 사진 삽화 그림책은 독자가 자신을 대입할 수 있는 현실의 존재를 생생한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Freedman(1992)이 말한 ‘독자가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세계’를 제공하고, 쉽지 않은 사춘기 여정을 이들과 함께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앰 아이 블루?¹²⁾〉와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¹³⁾〉는 모두 청소년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 소설로, 본 연구에서는 줄글책 중 소설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픽션과 논픽션을 가르는 기준을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나?’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나?’”(이성실, 2002, 38)에 두었을 때, 그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앰 아이 블루?〉를 엮은 작가 메리언 데인 바우어(2005, 10: 12)는 서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배려의 부족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청소년이 전국 모든 교실에 한 명씩 있”으며, “뛰어난 문학적 역량과 정확한 심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쓰인 13편의 단편소설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3.2 젠더 평등, 고정관념과 편견’의 학습목표 중 하나인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은 남자, 여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와 정확히 일치한다. Rosenblatt(1994, 25)에 따르면 모든 책은 심미적으로(aesthetically) 혹은 정보 추출 목적으로(efferently) 읽힐 수 있다. 독자와 책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이 두 권의 소설이 어떤 독자에게는 문학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책이 될 수도, 어떤 독자에게는 젠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성교육 도서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서술 기법 중에는 설명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77권 중 46권(60%)이 설명 방식으로 집필되었고, 이야기 방식과 설명 방식이 혼합된 도서는 11권(14%)이었다. 이야기 방식만으로 집필된 도서는 13권(17%), 질문과 대답 형식은 6권(8%), OX 퀴즈 방식은 1권(1%)이었다.

〈표 5〉 서술 기법에 따른 도서의 분류

서술 기법	도서의 수	비중	비고
설명	46	60%	
이야기	13	17%	
설명 + 이야기	11	14%	
질문과 대답(Q&A)	6	8%	
OX 퀴즈	1	1%	스티커북
총계	77	100%	

12) 이 책은 2021년 같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개정판에는 초판에서 제외되었던 단편 두 편이 추가되었다.

13) 이 책은 2013년 〈내 마음의 애니〉라는 제목의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설명 방식은 말 그대로 저자가 독자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건조한 문체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저자의 존재를 드러내며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걸스 토크>의 경우 저자인 이다 작가가 만화 캐릭터로 등장하여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다. <생리를 시작하 너에게>는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함께 저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글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야기 방식은 주로 그림책에서 나타났다. 주인공 화자의 목소리 혹은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 <슬픈 란돌린>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란돌린이라는 인형의 목소리를 활용한다. “나쁜 비밀은 배를 아프게 하고 엄청난 고통을 줘.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라는 란돌린의 대사는 어린이 독자의 눈높이에서 성폭력 피해를 설명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을 이야기한다. <엄마가 알을 낳았대>에서는 주인공 어린이들과 부모님 간의 대화 안에서 성교육이 진행된다. 지식정보책에서 정보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야기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에서는 말하는 인형이나 동물의 목소리를 통해 성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Venzo, 2021, 38).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중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라 아우성>에서는 요정 핑크가,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에서는 로봇 엑스와 와이가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성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라 아우성>과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을 포함한

만화책 대부분은 이야기 방식과 설명 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주인공 어린이들이 특정한 상황을 경험하거나 질문을 하면 성 지식을 가진 다른 캐릭터가 정확한 정보를 말해준다. 이때 정확한 성 지식을 전달하는 주체는 앞서 소개한 요정과 로봇, 산부인과 의사인 주인공의 이모, 주인공의 부모님이나(성교육) 선생님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들 간의 대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며, 동시에 별도의 페이지 혹은 별도의 정보 박스 등을 통해 저자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질문과 대답(Q&A) 방식으로 구성된 도서들은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의 질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가르쳐 주세요!>는 성교육 강사인 저자가 초등학교생들에게 직접 받은 질문 99개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우성 빨간책: 남자 청소년 편>과 <아우성 빨간책: 여자 청소년 편>은 책의 저자인 푸른 아우성 상담가들이 수년간 청소년과 부모로부터 받은 고민과 질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4.3 대상 독자

대상 독자의 연령 구분은 인터넷 서점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인터넷 서점에서 대상 독자의 연령을 다양하게 제시한 경우, 책의 제목과 출판사의 책 소개 글, 책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 책의 서문과 추천의 글 등을 고려하여 한 곳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아홉 살 성교육 사전>의 경우 인터넷 서점에서는 ‘초등 1-2학년’과 ‘초등 전 학년’ 두 곳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책 제목에서 아홉 살이라는 나이를 언급

했고, 출판사의 책 소개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이라는 구절이 나오므로 이 책의 대상 독자를 초등 저학년으로 분류했다.

77권의 도서 중 대상 독자가 초등 저학년인 책은 18권(23%), 초등 고학년인 책은 5권(7%), 초등 전 학년인 책은 21권(27%)이었다. 즉, 전체의 57%가 초등학생 독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독자가 청소년인 책은 30권(39%)이었으며, 양육자와 교사를 주요 대상 독자로 삼고 있는 책도 3권(4%)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들이다. 전체 도서의 30%인 23권이 특정 성별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상당수는 제목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소년’, ‘소녀’ 등의 단어를 포함함으로써 주요 대상 독자의 성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23권 중 여자 어린이나 여성 청소년을 주요 대상 독자로 삼고 있는 책은 16권, 남자 어린이나 남성 청소년을 주요 대상 독자로 삼고 있는 책은 7권으로, 여자 어린이·여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이 남자 어린이·남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여자 어린이·여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 16권 중 6권은 월경에 집중한 도서였다.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 23권 중 18권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중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가 총 34권이므로, 이 시기에 출판된 도서의 53%가 주요 대상 독자의 성별을 지정하고 있는 셈이다.

4.4 저자

4.4.1 저자의 직업

77권의 도서 중 성교육 전문가¹⁴⁾가 집필한 책은 25권(32.5%), 작가¹⁵⁾가 집필한 책은 23권(29.9%)이었다. 전체 도서의 38%인 29권이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다. 보건교사와 의사처럼 생물학적,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저자가 집필한 책도 있었

〈표 6〉 대상 독자의 연령에 따른 도서의 수

대상 독자	도서의 수	비중
초등 저학년	18	23%
초등 고학년	5	7%
초등 전 학년	21	27%
청소년	30	39%
양육자와 교사	3	4%
총계	77	100%

14)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강사, 성교육 연구자, 성문제 연구자, 성폭력 예방 전문가를 성교육 전문가로 분류했다.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진 경우,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성교육 전문가에 포함했다. 성교육 전문가 단체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했다.

15)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작가, 글 작가, 만화가를 작가로 분류했다. 작가 단체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했다. 다른 직업을 동시에 가진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가 첫 작품인 경우에는 다른 직업으로 분류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가 출판되기 전 다른 도서를 출판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작가로 분류했다.

〈표 7〉 저자의 직업에 따른 도서의 분류

저자의 직업	도서의 수	비중
성교육 전문가	25	32.5%
작가	23	29.9%
교사	4	5.1%
보건교사	3	3.9%
인권운동가	3	3.9%
여성학자	2	2.6%
유튜버	2	2.6%
의사	1	1.3%
심리 전문가	1	1.3%
사회복지 전문가	1	1.3%
교육 컨설턴트	1	1.3%
편집자	1	1.3%
그래픽 디자이너	1	1.3%
배우	1	1.3%
홀라후프 세계 신기록 보유자	1	1.3%
십대 미혼모들	1	1.3%
심리 전문가 & 교사	1	1.3%
방송 진행자 & 의사	1	1.3%
성교육 전문가 & 만화가	1	1.3%
알 수 없음	3	3.9%
총계	77	100%

지만, 유튜버나 배우, 홀라후프 세계 신기록 보유자 등 언뜻 성교육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저자가 집필한 책도 있었다. 그 외 교사(보건교사 외), 인권운동가, 여성학자, 심리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 편집자, 그래픽 디자이너, 십대 미혼모 등이 성교육 도서를 집필했으며, 심리전문가와 교사, 방송 진행자와 의사, 성교육 전문가와 만화가가 공동 집필한 책들도 있었다.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이들이 집필한 성교육 도서의 출판은 2019년부터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과 그 이전에 출판된 도서 중에서는 오직 14%(43권 중 6권)만이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이들이 집필한 책이었으

나, 2019년 이후에 출판된 도서 중에서는 무려 38%(34권 중 13권)가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가 집필한 책이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과 심리, 인간관계,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모두 아우르는 성교육임을 고려했을 때,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저자의 직업적 배경이 다양해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교육 전문가나 작가가 아닌 저자가 집필한 책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성교육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이다. 많은 저자가 본인이 어릴 때 필요로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냈다고 말한다. 〈안녕, 생리〉의 저

자인 교사 신윤지(2021, 13-14)는 생리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유독 많이 겪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도, 공감도 얻기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며, 책에 담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누군가에게는 정보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유튜브인 추시타 패션 피버(Chusita Fashion Fever)(2020, 11)는 〈이것은 성교육 책이 아님〉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성 과학자가 아니야. 비슷하지도 않지. 그렇지만 나는 대다수 10대가 경험하는 일을 똑같이 겪었고,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서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알게 됐어. 청소년에게 성생활에 관해 설명해 주는 책이 절실한 것 같더라고. 첫 경험부터 행위 그 자체까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책이 말이야. 만약 내가 더 어렸을 때 이 책이 있었다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4.4.2 저자의 성별 및 출신 국가

77권의 도서 중 여성 저자가 집필한 책이 53권(69%), 남성 저자가 집필한 책이 11권(14%)으로, 여성 저자의 책이 남성 저자의 책보다 5배가량 많았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집필했거나 저자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책은 13권(17%)이었다. 남자 어린이·남성 청소년을 주요 독자로 삼고 있는 책 7권 중에서도 남성 저자가 집필한 책은 2권뿐이었다. 현재 한국 성교육 현장에는 여성 강사가 남성 강사보다 훨씬 많은데(성교육쟁이, 2019), 성교육 도서 시장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77권의 도서 중 한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이 39권(51%), 외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이 37권

(48%),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저한 책이 1권(1%)으로, 한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과 외국인 저자가 집필한 책의 비율은 비슷했다. 외국인 저자의 국적별로 분류했을 때, 미국인 저자의 책이 12권(16%)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인 저자의 책이 7권(9%)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영국(4권), 스웨덴(3권), 호주(3권), 일본(2권),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각 1권) 출신 저자의 책도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틀을 세운 선구자 앤 캐롤 무어(Anne Carroll Moore)는 어린이 전문 사서의 필수 역량으로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최근에 직접 읽어보지 않은 책을 이용자들에게 권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Moore, 1969, 66)이라 단언할 정도로 사서가 도서관 장서를 직접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가 파악해야 하는 어린이·청소년 자료 중 성교육 도서에 집중하여 도서가 포함하는 내용,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 저자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한국에 출판된 성교육 도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정하여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과 주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54권의 도서에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몸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이며 성교육 도서를 통해 스스로 관련 지식을 배워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지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월경 주기, 난자와 정자, 호르몬의 역할 등 예전부터 성교육 도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어 오던 주제들은 지금도 많은 책에 등장하고 있었다. HIV와 AIDS, 젠더 기반 폭력은 성교육 도서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든 주제로, 전체 도서의 18%인 14권에서만 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한 도서 내에서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젠더 규범과 성 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한 문장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문장에서는 젠더 편견을 강화하는 식이다.

형식에 따라 도서를 분류했을 때 전체의 63.5%가 줄글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그림책, 만화책, 사진 삽화 그림책 등 다양한 형식의 성교육 도서가 있었다. 삽화는 글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저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세계에 독자가 더욱더 생생하게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서술 기법으로는 설명 방식이 60%로 가장 많았다. 설명 방식과 이야기 방식을 혼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만화책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림책에서는 이야기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전체 도서의 59%가 초등학생을 주요 대상 독자로 하고 있었다.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이 전체의 30%에 달했는데, 이렇게 주요 독자층을 성별로 한정 지어 책을 출판하는 것은 2019년 이후부터 활발해진 경향으로 보인다. 전체 도서의 32%는 성교육 전문가가, 30%는 작가가 집필한 책이었다. 나머지 38%

는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저자에 의해 집필되었다. 의사, 보건교사 등 오랫동안 성 지식 전문가로 인정받아 온 이들뿐 아니라 유튜버, 배우, 홀라후프 세계 신기록 보유자 등 과거에는 성교육 책의 주요 저자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들이 집필한 책도 많았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의 저자가 나타난 것 역시 2019년부터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저자의 성별로 분류했을 때 여성 저자가 집필한 책의 수(53권)가 남성 저자가 집필한 책의 수(11권)보다 5배가량 많았다. 저자의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인 저자의 책이 39권, 외국인 저자의 책이 37권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가 제시한 27개의 주제를 기준으로 도서를 분석하며 흥미로웠던 지점은 가이드가 제시하는 학습목표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장과 그림이 제법 있다는 것이다. 특히 '3.1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와 젠더 규범'의 학습목표인 '자신과 타인의 젠더 편견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반하여 젠더 규범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서가 많았다. 〈Why? 사춘기와 성〉의 주인공은 "깃곳은 장난을 좋아하"며 "쾌활한 성격"을 지닌 남자아이 꿈지와 "자꾸만 짜증을 부리는" 수줍음 많은 여자아이 엄지이다(2019, 7). 꿈지의 머리카락 색깔은 파란색, 엄지의 머리카락 색깔은 진한 핑크색이다.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의 주인공 로운이와 슬기의 캐릭터 디자인 역시 꿈지, 엄지와 유사하다. 남자아이인 로운이를 돕는 로봇 와이는 파란색에 짙은 눈썹을 가졌고 입매가 다부지며, 여자아이인 슬기를 돕는 로봇 엑스는 빨간색에 속눈썹이 길며 항상 웃는 표정이다. 〈루나레나의 비

밀 편지》에서 주인공 여자아이인 루나가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너 오늘도 기저귀¹⁶⁾하고 있냐?”, “고추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라는 말을 듣고 울고 있을 때 루나의 어머니는 “남자 애들은 여자보다 조금 늦게 철이 들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렴.”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루나는 이제부터 “마음을 넓게 가지”기로 결심한다(2020, 183-190). <너랑 나랑 뭐가 다르지?>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 “대체로 남자 아이는 씩씩하고, 여자 아이는 예뻐.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태권도를 하는 여자 아이와 무용을 하는 남자 아이가 있으니까.” 일부 예외가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전제는 “대체로” 남자아이는 이리하고 여자아이는 저러하다는 주장이다. 책에서는 이 구조가 여러 번 반복된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성별에 부여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하!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명화 소장은 “학교 성교육의 실패가 차이만 강조한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 같이 친구들이던 아이들이 성이라는 주제만 들어가면 ‘남자들’ ‘여자들’로 울타리를 치게 된다.”며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대상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이상원, 2020). 성별 차이를 부각하고 젠더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성교육 도서가 이러한 흐름을 심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생각해볼 것은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도서 중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판된 도서의 53%가 여자아이, 남자아이, 여성 청소년, 남성 청소년 등으로 주요 대상 독자의 성별을 지정하고 있었다.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의 저자 인티차베즈 페레즈는 서문에서 책의 핵심 독자층을 남성 청소년으로 잡았다고 밝히며, 본인이 진행한 성교육 수업에서 남학생들이 주로 했던 질문의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소녀들을 위한 내 마음 안내서>의 저자 로렌 리버스는 머리말의 첫 문장을 “이 책을 손에 든 소녀들아!”(2021, 5)로 시작하며 사춘기 소녀들이 겪는 마음의 변화를 이 책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 및 2차 성징 양상이 서로 다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규범과 젠더 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대상 독자층을 특정 성별로 지정했을 때 더 풍성하게 전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신과 성별이 다른 존재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린이·청소년 독자들에게 성교육 도서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다. 성교육이라는 주제 자체가 왠지 이들에게 어색하거나 쑥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Venzo, 2021, 40). 그래서 도서관에 보고 싶은 성교육 도서가 있어도 쉽사리 대출반납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성별을 대상 독자로 한 책에 손을 뻗기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본문 안에서 다른 성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노력하는 도서가 있기는 하다. ‘사춘기 A부터 Z까지 언니들이

16) 생리대를 기저귀라고 표현한 것.

알려 주마!’라는 부제를 가진 책 〈사춘기 처방전〉은 총 일곱 개의 챕터 중 한 챕터를 남성 청소년이 겪는 사춘기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채운다. 남성 청소년을 주요 대상 독자로 하는 책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역시 세 페이지에 걸쳐 여성의 생식 기관과 호르몬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제목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세다. 제목에서부터 ‘소년’과 ‘소녀’가 분리되어 있을 때, ‘소녀’ 독자와 ‘소년’ 독자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과 ‘내가 읽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 책’으로 그 책들을 바라보게 된다.

〈걱정 마! 생리〉는 부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읽는 생리에 대한 모든 것’이다. 저자인 클라라 헨리(2019, 250)는 여성 청소년으로 상정되는 독자들에게 “남성들이 생리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여성들을 이해하게 될 거”라며, “이 책을 다 읽었다면 꼭 주변에 친한 남성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거나 소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1994년생인 저자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성교육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갈라놓고 성에 대해 교육하면서 성관계와 우리 몸을 비밀스러운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11)고 비판한다. 성교육 전문가인 김혜경은 “남녀 함께 안전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다름과 같음을 확인하며, 성에 대해 배우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2021, 63). 서

로 다른 성별을 가진 이들이 자신을 충분히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데 있어 성교육 도서의 역할과 범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어린이도서관협회(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는 도서관에서 어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 중 하나로 어린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꼽는다(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a). 임정훈 외(2021, 141)에 의하면 한국 학교 현장의 사서교사들이 교사, 정보 전문가, 경영자, 협력적 리더의 직무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정보 전문가로서의 영역이며, 특히 장서 개발은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장서에 대한 이해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가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이자, 독자 상담 서비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다. 앞으로 성교육 외의 주제에 관해서도 장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도서 분석 연구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대유 (2021). 아동 성교육 도서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고찰: 여가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선정 사법 시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7, 1-13. <https://doi.org/10.36031/KJHE.7.1>

- 김방환, 윤신원 (2020). '나다움어린이책'에 수록된 양성평등 그림책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2), 87-109. <http://dx.doi.org/10.22154/JCLE.21.2.4>
- 김현실, 서현아 (20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생태유아교육연구*, 9(3), 1-29.
- 김혜경 (2021). 서로 존중 성교육.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 남기원, 이수연, 공예린 (2016). 유아 성교육 그림책 교육내용 분석: 2015 유치원 성교육표준안을 기준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4), 245-268. <http://dx.doi.org/10.22154/JCLE.17.4.11>
-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4). 무지개 성 상담소. 서울: 양철북.
- 메리언 데인 바우어 (2005). 책을 엮으며. 메리언 데인 바우어 편. *앰 아이 블루?* 서울: 낭기열라, 10-13.
-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색슈얼리티.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0657&docId=1530324&categoryId=60657>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국민 독서실태 조사. 출처: http://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74&pDataCD=0417000000
- 박수연, 김수향 (2016).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성교육 그림책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1), 167-188.
- 박현경, 봉진영 (2013). 그림책에 나타난 아동 성폭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157-184.
- 서지은, 양성은 (2021). 포괄적 성교육 개념에 근거한 나다움어린이책의 젠더감수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8), 593-607.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593>
- 성교육쟁이 (2019. 12. 28.). 가정 내 성교육에 아빠는 없다. 출처: <https://brunch.co.kr/@1793z/8>
- 심효정 (2003).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검열과 대응. *디지털도서관*, 32, 25-48.
- 여성가족부 (2018. 12. 18.).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 세상”.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787
- 이상원 (2020. 9. 17.). '나다움 어린이책 논란' 방황하는 한국의 성교육. 시사IN.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2>
- 이성실 (2002). 어린이 논픽션 책 기획의 원칙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편. *북페덱 1 - 어린이책*.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38-52.
- 임정훈, 이승민, 강봉숙, 이병기 (2021).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한 사서교사 역량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127-144.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127>
- 장덕현 (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65-182.
- 전광준 (2020. 9. 12.). “선정적·동성에 편향적”?...도서관 금서가 된 '나다움 어린이책'.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4.html

- 질병관리본부 (2020). 2019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발간. 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5267
- 최문선 (2010). 성교육 그림책 연구: 야노쉬의 〈엄마 말해 주세요, 누가 아이를 만드나요?〉를 중심으로. *해세연구*, 23, 203-224.
- 추시타 패션 피버 (2020). 이것은 성교육 책이 아님. 서울: 내인생의책.
- 클라라 헨리 (2019). 걱정 마! 생리. 양평: 고래이야기.
- 한국도서관협회. 2019. 도서관인 윤리선언.
출처: https://www.kla.kr/kla/bbs/content.php?co_id=ethic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a). Competencies for Librarians Serving Children in Libraries. Available: <https://www.ala.org/alsc/edcareers/alscorecomp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b). Infographic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bbooks/frequentlychallengedbooks/statistic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Gender Dysphoria. Available: https://www.psychiatry.org/File%20Library/Psychiatrists/Practice/DSM/APA_DSM-5-Gender-Dysphoria.pdf
- Freedman, R. (1992). Fact or Fiction? In Freedman, Person eds. *Using Nonfiction Trade Books in the Elementary Classroom*.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2-10.
- Martin, G. & Magi, T. (2021) *Intellectual Freedom Manual*. Tenth Edition. Chicago: ALA Edition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challengesupport/respond>
- IFLA (2012). IFLA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ations/node/11092>
- Liang, J. Y., O'Halloran, K., & Tan, S. (2016). Where do i come from? metaphors in sex education picture books for young children in China. *Metaphor and Symbol*, 31(3), 179-193. <http://dx.doi.org/10.1080/10926488.2016.1187039>
- Liang, J. Y., Tan, S., & O'Halloran, K. (2017). Representing sexuality and morality in sex education picture books in contemporary China. *Social Semiotics*, 27(1), 107-126. <http://dx.doi.org/10.1080/10350330.2016.1161117>
- Mallet, M. (2004). Children's Information Texts. In Hunt, Peter ed. *International Companion Encyclopedia of Children's Literature*. NY: Routledge, 622-631.
- Moore, A. C. (1969). *My Roads to Childhood: Views and Reviews of Children's Books*. Boston: Horn Book.
- Pappas, C. C. (2006). The information book genre: its role in integrated science literacy research and practice. *Reading Research Quarterly*, 41, 226-250.

- Paul, L. (2005). Sex and the children's book. *The Lion and the Unicorn*, 29(2), 222-235.
- Rosenblatt, L. (1994). *The reader, the text, the poem: the transactional theory of the literary work*. Carbondale, Il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UNESCO (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Venzo, P. (2021). That 'Tingly Feeling': Sex and Sexuality in Children's Nonfiction Picture Books. In Venzo, Moruzi ed. *Sexuality in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NY: Routledge, 29-43.
- Wattenberg, J. (2018). Picturebooks and Photography. In Kummerling-Meibauer, Bettina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Picturebooks*. Oxon: Routledge, 302-31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uer, M. D. (2005). Introduction. In Bauer, Marion Dane ed. *Am I Blue?* Seoul: Nanggyeolla, 10-13.
- Chang, D. H. (2011).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65-182.
- Choi, M. S. (2010). Study of sexuality education picture books: focusing on <Mutter sag, wer macht die Kinder?>. *Hesse-Forschung*, 23, 203-224.
- Fever, C. F. (2020). *This is Not a Sex Education Book*. Seoul: Naeinsaenguichaek.
- Glossary of Literary Criticism (2006). Sexuality. Availabl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0657&docId=1530324&categoryId=60657>
- Henry, C. (2019). Do not worry, period! Yangpyeong: Goraeyiyagi.
- Jeon, K. J. (2020, September 12). "Suggestive, LGBT friendly"?...'Nadaum Children's Books' censored in libraries. Hankyoreh.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864.html
- Kim, B. H. & Yoon, S. W. (2020). A study on picture books about gender equality in the 'nadaum children book' list.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21(2), 87-109.
<http://dx.doi.org/10.22154/JCLE.21.2.4>
- Kim, D. Y. (2021).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selectivity of children's sex education book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7, 1-13.
<https://doi.org/10.36031/KJHE.7.1>

- Kim, H. K. (2021). Sexuality Education of Mutual Respect. Seoul: School Library Journal.
- Kim, H. S. & Seo, H. A. (2010). Teachers' recognition and current condition of early childhood sex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9(3), 1-29.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Publication of 2019 HIV/AIDS Reports Yearbook. Available: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5267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9).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vailable:
https://www.kla.kr/kla/bbs/content.php?co_id=ethics
- Lee, S. S. (2002). Principles of Making Nonfiction Books for Children.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ed. *Bookpedem 1 - Children's Books*. Seoul: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8-52.
- Lee, S. W. (2020, September 17). 'Controversy over Nadaum Children's Books' Korean Sexuality Education Wandering. SisaIN. Available: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2>
- Lim, J. H., Lee, S. M., Kang, B. S., & Lee, B. K. (2021). A study on priority of teacher librarians' competencies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2), 127-144.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12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Available:
http://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74&pDataCD=0417000000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December 18). "Knock, Knock! The World of Gender Equality Opening with Books". Available: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787
- Nam, K. W., Lee, S. Y., & Kong, Y. R. (2016). Analysis of picture books for sex education in young children - with the 15 general standard for kindergarten sexual educatio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4), 245-268.
<http://dx.doi.org/10.22154/JCLE.17.4.11>
- Park, H. K. & Bong, J. Y. (2013). Child sexual abuse represented in children's picture book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4(3), 157-184.
- Park, S. Y. & Kim, S. H. (2016). Analysis of picture books on sex education presented by

the nuri curriculum for ages 3-5year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1), 167-188.

Seongkyoyukjaengyi (2019, December 28). No Dad in Sex Education at Home. Available: <https://brunch.co.kr/@1793z/8>

Shim, H. J. (2003). Censorship and action in public libraries. *Digital Library*, 32, 25-48.

So, J. & Yang, S. (2021). Analysis of the concepts underpinning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in nadaum children's book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8), 593-607. <https://doi.org/10.5392/JKCA.2021.21.08.593>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ngusai, Korean Lesbian Counseling Center, &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2014). *Rainbow Sexuality Counseling*. Seoul: Yangchulbook.

[부록 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도서 목록

(ㄱ~ㄴ순)

제목	글	그림	출판연도	출판사
10대, 인생을 바꾸는 성교육 수업 - 나다운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한	나무		2019	미다스북스
10대를 위한 성고민 상담소 -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몸과 성 이야기	박성은		2020	미다스북스
10대와 통하는 성과 사랑	노을이	스튜디오 돌	2012	철수와영희
Girls' Talk 걸스 토크 -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	이다	이다	2019	시공주니어
Why? 사춘기와 성	전지은	이해조	2019	예림당
가르쳐 주세요! - 성이 궁금한 사춘기 아이들이 던진 진짜 질문 99개	카타리나 폰 테어 가텐	양케 쿨	2016	비룡소
가족앨범	실비아 다이네르트, 티네 크리그	울리케 불얀	2004	사계절
걱정 마! 생리 - 남자친구와 함께 읽는 생리에 대한 모든 것	클라라 헨리	이해민	2019	고래이야기
구성애 아줌마의 10대 아우성	구성애	만밤	2008	울리브(M&B)
구성애 아줌마의 응답하라 아우성	구성애	NTOON	2015	울리브앤엠비(주)
구성애의 빨간책	구성애		2003	울리브(M&B)
그럼 안 되는 걸까?	왕대나무	심창국, 배현선, 장정윤	2013	예림당
나의 첫 생리	매러와 이브라힘	사이넴 어카스 그림	2020	탐
내 몸은 나의 것	린다 윌부어드 지라드	로드니 페이트	2007	문학동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코넬리아 스펠만	테리 와이드너	2007	보물창고
내 몸이 궁금해요	파울린느 아우드	파울린느 아우드	2020	북드림아이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남자)	퐁고디아 출판사(Jane Graver)		2021	규장문화사
너랑 나랑 뭐가 다르지?	빅토리아 파시니	빅토리아 파시니	2002	비룡소
너의 사춘기를 응원해	펠리시티 브룩스	케이티 로벨	2015	크레용하우스
니 몸, 내 맘 얼마나 아니?	배정원	최해영	2015	팝파스
니 잘못이 아니야...	구성애		2003	울리브(M&B)
돌직구 성교육	제인 폰다		2016	예문아카이브
루나레나의 비밀 편지	안명옥	황미나	2020	책과이음
무지개 성 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4	양철북
별을 보내다	대한사회복지회 위음		2019	리즈앤북
브리태니커 만화 백과: 사춘기와 성	봄봄 스토리	장호찬	2016	미래앤아이세움
빨강은 아름다워	루시아 자폴로	루시아 자폴로	2021	사계절
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이남석		2010	사계절
사랑을 하고 싶은 너에게	가와마쓰 야스미		2018	나무를심는사람들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안트예 헬름스	얀 폰 홀레벤	2018	이미주
사춘기 처방전	아다 누치	메그 힌트	2021	책읽는곰
생리를 시작한 너에게	유미 스타인스펠리스 캉	제니 래섬	2019	다산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	로비 H. 헤리스	마이클 엠벌리	2003	다섯수레
성교육 상식사전	‘인간과 성’ 교육연구소, 다카야나기 미치코	남동윤	2015	길벗스쿨
성교육 스티커북: 우리 몸은 소중한	(주)고양이뽀	(주)고양이뽀	2017	고양이뽀

제목	글	그림	출판연도	출판사
성교육 하는 아빠의 퀘퀘아, 사춘기(대화책 ONLY)	박제균	김혜선	2020	고양이뽀
성교육이 끝나면 더 궁금한 성 이야기	플랜드 패런트후드	플랜드 패런트후드	2020	휴머니스트
섹스북	퀀터 아멘트		2000	박영출판사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넌시 가든		2007	보물창고
소녀들을 위한 내 마음 안내서	로렌 리버스, 초등센터교육연구회 아웃박스		2021	휴머니스트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소나 르네 테일러		2019	휴머니스트
소년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스콧 토드넵		2020	휴머니스트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	일로나 아인볼트	바바라 옹	2020	위즈덤하우스
소중한 내 몸을 위해 꼭꼭 약속해	박은경	김진화	2009	책읽는곰
슬픈 란돌린	카트린 마이어	아네트 블라이	2003	문학동네
시크릿 가족	이충민	이충민	2014	올리브(M&B)
침대를 위한 사랑하 개론	정연희, 최규영	박경호	2014	꿈결
침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이진아		2019	두란노
침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학생용	이진아		2019	두란노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피오나 커토스커스	피오나 커토스커스	2018	고래기슭쉬는도서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페르 홀름 크누센	페르 홀름 크누센	2017	담푸스
아우성 빨간책: 남자 청소년 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2017	올리브엔비
아우성 빨간책: 여자 청소년 편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2018	올리브엔비(주)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남자아이 마음	손경이	방인영	2020	다산에듀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남자아이 몸	손경이	방인영	2020	다산에듀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여자아이 마음	손경이	원정민	2020	다산에듀
아홉 살 성교육 사전 세트: 여자아이 몸	손경이	원정민	2020	다산에듀
안녕, 나의 사춘기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안치현	손수정	2020	아이세움
안녕, 생리	신윤지		2021	팩토리나인
엠 아이 블루?	브루스 코벨 외 다수		2005	낭기열라
어서 와, 사춘기	아니타 나이크 필립 윌킨슨	사라 혼	2020	예림당
엄마 씨앗 아빠 씨앗	티에리 르낭	세르주 블로크	2016	파랑새
엄마가 알을 낳았대!	배빗 쿨	배빗 쿨	1996	보림
여자아이의 왕국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2011	창비
열두 살, 나의 첫 사춘기	차승민	박연옥	2017	팜파스
요즘 10대	정승호		2021	썹썹한알
이것은 성교육 책이 아님	추시다 패선 피버		2020	내인생의책
이럴 땐 싫다고 말해요!	마리 프랑스 보트	파스칼 르메트르	2010	문학동네
이상한 곳에 털이 났어요!	배빗 쿨	배빗 쿨	2008	삼성당아이(여명미디어)
일단, 성교육을 합니다	인티 차베즈 페레즈		2020	문예출판사
재미있는 사춘기와 성 이야기	이명화, 양윤경	최정인	2014	가나출판사
좋아서 꺼안았는데, 왜?	이현혜	이효실	2015	천개의바람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책임의 성교육 편지 2	이광호		2020	좋은땅
초경파티	이현정, 노지은	장정예	2002	또하나의문화
톡톡, 나쁜 손	김경옥	박영	2016	소담주니어
페미니즘 탐구 생활	게일 피트먼		2019	사계절
푸른이와 우성이의 성장일기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이수연	2020	올리브(M&B)